

##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 1. 기본정보

학과	관광경영학과	이름	
파견국가	미국	파견도시	Shippensburg
파견대학	Shippensburg University	파견기간	2017-2학기, 2018-1학기
귀국여부	예		

###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Shippensburg University는 미국 동부 Pennsylvania 주의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Philadelphia 에서 차로 2시간 반, New York 주의 New York 에서는 차로 4시간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학생수는 한국의 대학에 비교해서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아무래도 시골에 위치해 있고, 유명한 대학이 아니고, 근처 지역에 살던 주민들이 학생의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학교 캠퍼스는 굉장히 커요. 다양한 시설도 순천향대학교 못지않게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학교의 시설들은 학생증이 있으면 다 무료로 이용 가능해요! 일단 학교 전체적인 분위기는 미국 특유의 자유로운 분위기가 있구요. 제가 들어갔던 수업의 친구들은 다들 저에게 친절했고, 질문을 하면 곧잘 대답해줬어요.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차별을 심하게 한다거나 하는 건 저는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수업	<p>저는 연극무용학과 복수전공을 하고 있어서 일부러 연극학과수업이 있는 학교로 선택했어요.</p> <p>[2017-2학기]</p> <p>Principle Economics, 경제학개론 수업이에요. 기초경제에 대한 이론을 배우고, 생활전반에 활용하는 것까지 배워요. 한국인 교수님 수업이었고 교재는 렌트를 했어요. 관광경영학과와 수업으로 학점인정을 받았구요. 처음엔 쉽고 재밌었는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엄청 어려워져요. 그럴땐, office hour를 잘 활용하면 교수님께 개인적으로 질문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저희학교는 tutoring 프로그램도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economic 전공학생들이 학교에서 돈을 받고 알바형식으로 저학년 학생들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저는 office hour 를 주로 가서 tutoring 은 이용해보진 않았지만 다른 한국학생들은 tutoring 도움을 정말 많이 받더라구요.</p>

제일 인상깊었던 점은 학생들이 교수님의 강연 중간중간 의문점을 제기한다는거였어요.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Theatre Practicum, 이 수업은 연극무용학과의 연극제작 실습 수업으로 인정받았어요. 한국에서처럼 똑같이 연극작품제작에 참여하는 수업인데 이미 캐스팅이 끝난 상황이어서 오디션을 보진 못했구요. 학생연출 보조로 일하면서 소품이나 무대정리, 카메오 출연을 했어요. 연극을 복수전공하는 저에게는 제일 행복했던 수업이에요. 친구들도 다 잘해주고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수업이었어요.

Theatre History, 연극의 역사에 대해 배우는 수업이에요. 특정 시기 연극의 역사에 대해 먼저 배우고 공연영상을 봐요. 그래서 그 시기의 특징적인 것들을 다시 한 번 파악할 수 있죠. 한학기애 세번정도 리포트를 썼어요. 2주에 한번씩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연극 영상에 대한 자신의 코멘트를 쓰는거죠. 이 리포트를 작성할 때 writing tutoring 을 많이 이용했어요. 제가 써서 가져가서 문법이나 뉘앙스를 체크받는 tutoring 이었어요.

Marketing and Event Planning, 마케팅의 기본적인 이론에 대해 배우고 각종이벤트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배웠어요. 대체적으로 교수님이 만들어져있는 피피티를 보여주고 책을 읽으셔서 그렇게 재미있는 수업은 아니었지만 교수님이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가지고 계셔서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이메일로 질문하면 바로 대답해주시고, 제가 외국인이고, 교수님의 강의를 100프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걸 아시고, 저에게 많은 기회를 주려고 하셨어요.

Introduction to technical Production, 연극제작에 필요한 기술을 배우는 수업이었어요, 조명, 음향, 그리고 안전하게 작업을 하는 방법등을 배웠어요. 도구들을 다양하게 둘러볼 수 있는 수업이었고, Theatre Practicum에서 만들어가는 연극작품을 이 수업의 학생들이 무대를 만들어요. 그게 한국이랑 제일 다른 부분이었어요. 한국은 단기간에 걸쳐 밤을 새서 만들어내려고 하는 이유가 연극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 작업을 해야하기 때문인데, 수업이 두가지로 나뉘어서 한 작업에 참여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구색을 맞추는데 까지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렸어요. 하지만 효율을 더 좋았죠.

[2018-1학기]

Beginning French I, 기초 프랑스어 수업이에요, 미국학교에서 외국학생은 적어도 12학점, 총 4개의 수업을 들어야해요, 무조건. 그래서 선택하게 된 수업인데 재밌게 들었던 거 같아요. 새로운 언어를 영어로 배우는 사실이 제일 신기하면서도 재밌었던 거 같아요. 그리고 숙제만 잘 해온다면, 교수님이 점수를 잘 주셨어요..ㅎ 미국 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안해서 그런가..

Acting I, 연기에 대한 기초를 배우는 수업이에요. 대본에 다가가는 방법, 캐릭터를 설정하는 방법, 배경을 알아내는 방법, 몸을 쓰는 방법 등등 다양한 강의를 들었어요. 스타니스랍스키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책을 교수님이 직접만드셔서 배부하시고 그 교재를 가지고 이론을 배우거나 이론을 배우기 전에는 그 거에 대한 즉흥 연기를 시키셨어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즐거운 수업이었습니다.

Voice Class, 가창 수업이에요, 다양한 장르의 노래를 연습하고 적어도 2주에 한번은 공연을 했어요. 수업에 학생이 두명 뿐이라 개인적으로 지도를 받은 적도 있어요.(운이 좋았죠) 노래를 잘 부르게 도와주는 수업이라기 보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는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Costumes & Make up ; prep theatre, 의상의 기본 역사에 대해 제일 먼저 배워요. 17세기부터 21세기까지의 의상에 대해 배웠어요. 직접 디자인 하는 수업인 줄 알고 신청했지만 역사수업이었죠... ㅎ 역사도 어어어엄청 복잡하고 내용이 많아서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읽기자료도 엄청 많았어요. 다 읽으려고 하다 보니 너무 시간도 오래걸리고 그래서 몇주뒤부터는 안읽어갔어요.. ㅎ... 미국애들은 아무도 안읽어오더라구요.

저는 4학년으로 미국에 간거라 전공 학점인정 받을 수 있는 수업 위주로 들었어요, 초과학기를 이용해서 가신다면, 그래서 즐겁게 들으실 수 있는 수업을 찾는다면, voice class 나 acting I 수업을 추천해요. 교수님들이 다들 너무 좋아요.

프로그램 운영	<p>학교에 처음 도착하면 Exchange Student를 담당하는 선생님(Mary) 사무실에 가서 안내를 받아요. 저는 April 과 Mary 가 담당선생님이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는 교환학생을 위한 학교투어 오리엔테이션이 있어요. 다같이 밥도 먹고 투어도 해요. 학교 시설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학교생활에 관해 고민이 있다면 언제든지 메리에게 물어보면 되요! 육체적 문제, 정신적인 문제는 학교 Health care center로 가면 되요!</p>
------------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제가 있는동안 날씨가 엄청 안좋았던 적은 겨울밖에 없어요. 심지어 겨울에도 눈이 많이오는 것 뿐이지 날씨가 흐린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맑은 편이지만 펜실베니아의 중심부에 있다보니 눈이 왔다가 그다음날은 26도까지 올라가고 그런적도 많았어요. 여름에는 무지 더워요!!!!</p>
안전	<p>아무래도 시골이고, 거주민들이 학생, 교수들, 직원들 이 대부분이며 애초에 그 지역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건사고도 드물어요. 굉장히 안전한 동네지만 불법 마약을 하는 학생들이 가끔 있으니 저녁에는 혼자 돌아다니지 않는게 좋겠죠? ㅎㅎㅎ</p>
숙소	<p>저는 Stone Ridge Commons라는 off-campus 기숙사에 살았어요. 연식에 비해 굉장히 관리가 잘 되어 있고, 안전하고, 깨끗하죠. 벌레가 나온적이 한 번도 없어요(예를 들면, 쥐). 본인이 자주 청소하고, 관리를 잘한다면 더욱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겠죠? 저는 맞은편 College Park랑 BardTown도 놀러가봤는데 저희 집 만큼 편한 곳은 없는거 같아요. 일단 오프캠퍼스 숙소는 다 키친이 구비되어 있어서 요리해먹을 수 있고 제가 살았던 곳은 2명이 같은 룸을 췌어하고 방은 혼자 썼어요. 혼자 있고 싶을땐 제격이었죠. 심지어 같이 살던 하우스 메이트도 독일 교환학생이었는데 1학기만 하고 돌아가서 다음 한학기는 혼자 썼어요 ㅎㅎ 운이 좋았죠..</p>

	제가 살았던 곳은 고장난 곳이 있으면 바로 말하고 무료로 다 고쳐줬어요. 샤워기 헤드가 너무 더러워서 갈아달라고 했더니 공짜로 갈아주셨구요. 샤워부스 천장에서 물이 새서 그것도 말했더니 2주 뒤엔가 벽지를 새로 붙여주셨어요. 입구에서는 키가 무조건 있어야 들어갈 수 있고 방에 키를 두고 문을 잠그는 경우에는 오피스에 가서 말하면 열어줘요(몇번 그랬는데 항상 친절하게 열어주셨음, 규칙상으로는 한번인가 두번만 열어주고 그 다음부터는 돈을 받는다고 되었는데 실제로 돈을 받지는 않으셨죠...)
식사	저는 주로 요리를 해서 먹었어요. 밀플랜이 한국인 입맛에 잘 안 맞는다 그래서 저는 요리를 해먹을 생각으로 Stoneridge에 살았던 거예요. 요리를 해먹다보니 제 입맛에 맞게 요리를 해먹을 수 있어요. 방마다 오븐도 있어서 편했구요. 밀플랜은 아주 가끔 친구들이랑 먹을 때 갔어요.. 돈아까워서.. 엄청 비싼데 뷔페라 많이 먹다보니 과식하게 되더라구요.
교통	오프캠퍼스지만 걸어서 등교할 수 있었어요. 월마트나 자이언트 마켓을 가려면 교내에서 운영되는 무료셔틀을 타면 되는데 글로벌오피스에 가면 루트와 시간표가 적힌 종이를 나눠줘요. 처음엔 버스타고 다녔는데 나중엔 친구들한테 부탁하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버스시간 맞추기가 힘들어서.. ㅎㅎ 그런 버스를 제외하면 다니는 버스는 일.절. 없습니다. 어딜 가려면 월마트에서 큰도시로 나가는 버스를 타야해요. 아니면 친구들을 데리고 나가던가..ㅎㅎㅎㅎㅎㅎ 엄청난 시골이죠.

####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편도 800,000 + 편도 300,000	갈때는 델타항공과 유나이티드 이용, 올때는 중국동방항공 이용.																																																												
Fees	한학기 1664 불, 대략 180만원정도가 각종 fee로 청구됩니다	<div>201760 Fall 2017 Term Detail</div> <table><tr><th>Detail Code</th><th>Description</th><th>Charge</th><th>Payment</th><th>Balance</th></tr><tr><td>FACT</td><td>Activity Fee</td><td>\$272.00</td><td></td><td></td></tr><tr><td>FEDS</td><td>Educational Service Fee</td><td>\$384.00</td><td></td><td></td></tr><tr><td>FHEA</td><td>Comprehensive Health Fee</td><td>\$170.00</td><td></td><td></td></tr><tr><td>FREC</td><td>Recreation Fee</td><td>\$185.00</td><td></td><td></td></tr><tr><td>FSTU</td><td>Student Union Fee</td><td>\$300.00</td><td></td><td></td></tr><tr><td>FTE6</td><td>Technology Tuition Fee Fall</td><td>\$353.00</td><td></td><td></td></tr><tr><td>PECC</td><td>E-Credit Card</td><td></td><td>\$1,664.00</td><td></td></tr><tr><td colspan="4">Net Term Balance</td><td>\$0.00</td></tr><tr><td colspan="4">Net Balance for Other Terms:</td><td>\$0.00</td></tr><tr><td colspan="4">Account Balance:</td><td>\$0.00</td></tr><tr><td colspan="4">Current Amount Due as of Jun 23, 2018:</td><td>\$0.00</td></tr></table>	Detail Code	Description	Charge	Payment	Balance	FACT	Activity Fee	\$272.00			FEDS	Educational Service Fee	\$384.00			FHEA	Comprehensive Health Fee	\$170.00			FREC	Recreation Fee	\$185.00			FSTU	Student Union Fee	\$300.00			FTE6	Technology Tuition Fee Fall	\$353.00			PECC	E-Credit Card		\$1,664.00		Net Term Balance				\$0.00	Net Balance for Other Terms:				\$0.00	Account Balance:				\$0.00	Current Amount Due as of Jun 23, 2018:				\$0.00
Detail Code	Description	Charge	Payment	Balance																																																										
FACT	Activity Fee	\$272.00																																																												
FEDS	Educational Service Fee	\$384.00																																																												
FHEA	Comprehensive Health Fee	\$170.00																																																												
FREC	Recreation Fee	\$185.00																																																												
FSTU	Student Union Fee	\$300.00																																																												
FTE6	Technology Tuition Fee Fall	\$353.00																																																												
PECC	E-Credit Card		\$1,664.00																																																											
Net Term Balance				\$0.00																																																										
Net Balance for Other Terms:				\$0.00																																																										
Account Balance:				\$0.00																																																										
Current Amount Due as of Jun 23, 2018:				\$0.00																																																										

보험료	국내 삼성유학생보험에 가입했어요. 1년기준 대략 80만원이었습니다.	
숙소	한달 70만원(650불) * 9months + 보증금 55만원(500불)	보증금은 계약할 때 지불했습니다.
식비	20만원~50만원/한달기준	저는 주로 요리를 해먹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장 봐서 생활했어요. 20만원은 정말 아껴서 생활했을 때, 50만원은 정말 평평썼을 때.
교통비	0원	여행가야할 때 큰도시까지 데려다 주는 셔틀버스는 편도 3불입니다. 이걸 자주 이용했는데, 캐시만 받아용. 이거 말고는 교통비 들게 없어요☺
책값	10만원~50만원/한학기기준	과목마다 교재마다 책값이 천차만별입니다. 주로 아마존이나 Chekk..? 에서 렌트를 하는 친구들도 많구요. 새책으로 다 사는 친구들도 있어요. 교내 서점에도 렌트는 해주니 여러군데에서 잘 찾아보고 원하는 걸로 이용하면 되겠죠?ㅎㅎ
합계	9달 기준(겨울방학포함) 1435만원	생활비 최소기준, 책값 최소기준. 여기서 여행을 하신다거나 하면 그만큼 비용이 증가하겠죠! 하지만 꼭 여행 많이 다니시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미국은 땅덩어리가 정말 넓어서 갈 곳이 많아요. 미국까지 갔는데, 다 누리고 오시길 바래요!

## 5. 출국 전 준비사항

편도 입국은 학생비자로만 가능합니다. 제가 학기 시작일이라고 서류에 쓰여있는 것보다 일찍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캐나다 출국 비행기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편도 입국을 하려는 학생들은 학생들의 I-20에 적혀있는 프로그램 시작시기로부터 한달이전인지, 한달 이후인지를 잘 따져서 비행기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비행기표를 미리 사놓고 비자를 받은거라 학생비자로도 편도 입국이 안되는 시기가 있다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본인 서류에 적혀있는 날짜 잘 확인하시고 떠나기 전에 이것저것 알아보고 출국 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한국에서 파는 유심칩이 미국내 유심칩보다 싸답니다☺ 미국에서 유심칩 사려면 더어어어어어영 비싸요. 캐나다나 멕시코를 자주 가실게 아니라면 simple mobile(미국내 통신회사)유심이 제일 저렴하구요. 저는 일년동안 저 회사꺼 잘 썼습니다. 저희학교는 와이파이기가 교내에서는 빵빵 잘 터지고 숙소에서도 잘 터지기 때문에 데이터 무제한까지는 필요없어서 한달 1기가 정도 25불에 사용했구요. 여행갈때만 무제한으로 바꿔서 이용했어요. 덕분에 통신비 절감.ㅎㅎㅎ 미국 인터넷 느리다는 걱정 필요없어요. 게임을 다운 받지 않는 이상 느리다는 생각은 안드실거예요. ㅎㅎ

## 6. 본인 소감 및 평가

저는 교환학생을 갑자기 준비하게되었어요. 제가 4년 학교를 다니면서 이런 혜택을 한번도 못 누린다면 그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서였죠. 그래서 휴학을 하고 열심히 영어공부를 하고, 교환학생을 가고... 저에게는 정말 꿈 같은 일이었어요.

다녀와보니, 더욱 욕심이 생겼고, 지금은 대학원을 준비중입니다. 학교에서 만난 친구들과 교수님들 다들 너무 잘해주셔서 좀 더 공부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는지도 모르죠.

지금 한국에 들어온지 3주정도 되었는데.. 다시 가고싶어서 미칠거 같아요 ㅎㅎㅎ

만약 이글을 읽고 계신분이 교환학생을 가고싶어서 읽고계신 거라면 정말 정말 꼭 가라고 하고 싶어요. 인생의 많은 부분이 바뀔거예요.

생각하는 방법 문화를 받아들이는 방법, 낯선 곳에서 사람을 사귀는 방법 등등..

한국과 정말 많이 다른 곳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고 깨닫고 돌아왔어요. 내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세상은 이렇게나 넓구나. 이렇게나 자유롭게 사는 사람이 많구나.. 미국에서 정말 본받고 싶었던건, 자유로운 학습 분위기? 거기 친구들은 질문하는것도 스스로이 없고, 자신감이 넘쳐요.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친구들이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한다면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교환학생을 가는 것을 고민하지 마세요. 능력이 될 때,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마세요.

##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2018-1학기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한 친구들과 함께.



학교의 랜드마크 Old Main Fountain앞에서



칼라일에 있는 내 생애 최고의 영화관



Friday Food Night Party with my squad





학교를 떠나기 전 친구들에게 받은  
선물들



가을 방학 때, 뉴욕 여행 당시